



I. 서론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문제는 양적(量的) 면에서 현저히 완화되었다.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학교폭력의 경우에 오랫동안 교육환경의 고질적 문제였으나 최근에 들어 발생수준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0년까지만 하여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33,833명에 달했으나 그후 2001년에는 27,446명, 2002년에는 23,921명, 2003년에는 12,559명으로 해마다 줄었고 최근 2004년에는 9,923명까지 감소하였다¹⁾. 물론 교육시설에서 아직도 연간 1만여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대처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되겠지만, 발생건수 면에서 학교폭력문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호전된 상태이다. 학교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도 최근에 들어 완화하는 추세이다. 청소년비행의 경우에 1997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7년에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164,182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104,158명에 불과하여 1997년에 비해 1/3 이상이 감소하였다²⁾. 이에 따라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청소년비행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에는 7.8%이었으나 현재는 4.3%에 그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양적인 면에서 청소년문제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최근에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과거에 청소년비행은 대부분 일과성(一過性)이었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대부분 그러한 문제행위를 한번만 하고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후에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하였다. 최근에 들어 우려되는 현상은 청소년비행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습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과거 10년 전에 청소년비행의 상습화경향은 20%내외에 불과하였다. 이후 상

1) 이순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세미나 발표원고, 2005:4.
2) 도중진 등, 소년사범의 걱정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4.

습화경향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2003년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비행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소년비행이 한번에 그칠 경우에 학교나 가족과의 끈은 유지될 수 있지만 상습화되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상습적 비행으로 경찰서를 오가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이들은 소년의 성장에 필수적인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며, 부모들도 더 이상 개선의 기대를 갖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보호로부터도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의 미래는 자명하다. 상습 비행청소년을 반기는 정상적 생활기회는 많지 않고, 이들을 유혹하는 곳은 오직 일탈이 난무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암흑의 세계일 뿐이다. 청소년기에 이들은 더욱더 비행의 상습화에 빠져들며, 성인기에 들어서는 정상적 교육의 결손으로 인해 갖은 종류의 일탈을 당연시하면서 사회의 문제집단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비행의 상습화는 단지 청소년기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인기 문제집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최근에 악화되는 경향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비행의 상습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선행적 시계열자료(prospective longitudinal data)의 부재로 많지 않았다. 기존의 관련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일부에서는 외국문헌을 토대로 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원인을 이론화하는 작업에 치중하였고, 다른 일부에서는 후행적 시계열자료(retrospective longitudinal data)을 수집하고 부분적으로 이론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론화작업은 상습화현상에 관한 이론적 설명틀을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으로 정리하는데 기여하였다. 여기서 발전학습론이란 비행의 상습화 과정에서 학습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이며, 발전긴장론은 긴장요인을, 발전통제론은 성장단계별 사회유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경험적 검증을 결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설명모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한 후행적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비행이나 범죄의 발전양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과거에 비행을 저지르고 이후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조사대상자

들이 누락되는 자료자체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이 상습적 비행에 빠져드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KYPS(Korea Youth Panel Study)를 사용하여 1) 청소년비행 상습화 현상의 실태를 기술하고, 2) 상습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3) 분석결과를 기초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발전학습론
2. 발전긴장론
3. 발전통제론
4. 연구가설의 설정

II. 이론적 배경

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이론화 작업이 시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비행의 상습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발전범죄학이란 이론으로 1990년대에 들어 시도되었다. 발전범죄학은 크게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 등 세가지 방향으로 세분화되었다. 각 분석들은 기존 이론의 주요개념들을 청소년의 발전단계나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발전학습론은 청소년의 발전단계에서 학습과정을, 발전긴장론은 발전단계별 긴장요인을, 발전통제론은 발전단계별 사회유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음에서는 비행의 상습화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발전학습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발전긴장론, 세 번째로 발전통제론의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발전학습론

학습이론의 측면에서 비행 상습화현상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모피트이다. 모피트가 주목했던 현상은 연령과 비행율과의 관계였다. 여러 연구들이 보고하였듯이 비행율이나 범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고 이후 성인기에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다. 구체적으로 브룸스테인과 코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들면서 비행율이 폭증하며, 20대초에 들면 이들 중의 50퍼센트 가량은 범죄를 그만두고, 28살 무렵에는 85퍼센트가 범죄를 그만두는 것으로 연령에 따라 범죄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³⁾. 이같은 연령과 비행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피트는 범죄자들을 생애지속범죄자(life-life persistent offender)와 청소년기 한정비행자(adolescence-limited delinquents)로 구분하고, 이들의 작용으로 인하여 비행의 수준은 청소년연령대에 높고 성인연령대에

3) Blumstein, A. & J. Cohen.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237. 1987: Pp.985-991.

는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생애지속범죄자(이하 지속범죄자)란 개인의 기본성향면에서 결함이 있으며 어려서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범죄로부터 손을 씻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반면에 청소년기 한정비행자(이하 한정비행자)란 기본성향의 면에서는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지만 청소년이란 발전과정상의 특성과 학습이나 모방에 의해 청소년기에 국한하여 비행을 저지르고 이후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다음에서는 모피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속범죄자와 한정비행자의 특성과 이들의 차별적 발전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범죄자로서의 소질형성과 관련하여 모피트가 강조했던 사항은 정신심리적 기능(neuro-psychological function)의 장애와 어렸을 때의 부적절한 성장환경이다⁴⁾. 즉 출생전후에 모체나 태아의 이상으로 정신심리적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부모의 무관심이나 양육방법의 잘못으로 이같은 기능장애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함으로써 지속범죄자로서의 성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출생전후의 상태에 주목함으로써 모피트는 생애지속범죄자의 성향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한 듯하다. 그러나 모피트는 출생전후에 정신심리적 기능장애가 있더라도 조기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유아의 기능결핍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훈육방법을 적용하면 기능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일 부모가 자녀의 기능장애에 주목하지 못하고 필요한 훈육을 하지 않았을 때에 지속범죄자로서의 성향이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모피트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 생물학적 요인과 조기성장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피트는 이렇게 형성된 문제성향의 구체적인 상태로 흥분성(irritability), 높은 활동성(high activity), 낮은 자아통제력(low self-control), 낮은 인지능력(low cognitive ability) 등을 지적하였다⁵⁾. 더불어 지속범죄자들이 생

4) Moffitt, T.E.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1993: Pp.674-701;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In T.P. Thornberry (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17-21.

에 전과정에 걸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빠지는 것은 바로 문제성향의 현시적 결과(contemporary outcomes)와 누적적 결과(cumulative outcomes)에 기인한다고 보았다⁶⁾. 현시적 결과란 문제성향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이다. 예컨대 높은 흥분성의 사람들은 성장과정의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고, 또한 낮은 인지능력의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반사회적 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 이같이 현시적 결과란 문제성향의 직접효과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누적적 결과란 문제성향이 성장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즉 문제성향의 간접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결과들이다. 예를 들어 문제아동의 경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취업기회를 갖지 못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듯이, 문제성향이 이후의 생활기회를 점차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반사회적 행위가 장기화되는 경우이다.

모피트는 누적적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⁷⁾. 첫 번째는 친사회적 행위목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이다. 문제성향의 아동들은 높은 흥분성과 낮은 자아통제력 때문에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접촉을 회피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 주위 사람들의 회피 뿐만 아니라 문제아동 자신도 이들과의 관계를 기피함으로써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는 친구관계나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위목록 즉 합법적인 문제해결방법을 학습할 수 있지만 문제아동들은 이같은 학습기회가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렸을 때의 비정상적 행위가 발전과정에서 덧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낮은 자아통제력이나 충동성으로 문제아동들은 청소년기의 임신, 마약에의 탐닉, 중퇴, 범죄로 인한

5) Moffitt. 앞의 책: p.19.

6) Moffitt. 앞의 책: p.20.

7) Moffitt. 앞의 책: Pp.21-22.

상해 등의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들은 미혼모의 경우처럼 이후에 해당아동이 정상적인 생활로 환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하는 일생의 덫(snare)이 됨으로써 이들은 일생동안 반사회적 생활양식을 버릴 수 없게 된다. 세번째는 사회적 낙인의 효과이다. 문제아동들의 행위에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좋은 직업, 고등교육, 원만한 결혼 등의 생활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문제아동들이 반사회적 생활양식을 지속하게 하는 누적적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피트에 의하면 지속범죄자의 경우는 어렸을 때에 형성된 문제성향이 주요한 원인이며, 문제성향의 현시적 결과와 누적적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생애 전과정에 걸쳐 범죄를 포함한 반사회적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정비행자의 경우는 지속범죄자들과 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였다⁸⁾. 한정비행자들은 기본성향면에서 정상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또한 지속범죄자의 경우는 문제성향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범죄에 빠져들지만 한정범죄자의 최초범죄는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성인기에 들면서 대부분 범죄로부터 손을 씻고 정상적인 생활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비행율이 급증하고 성인기에 감소하는 까닭은 청소년기에 한정비행자들이 대규모로 출현하기 때문이며 20대 이후에는 이들이 더이상 비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환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국한하여 한정비행자가 대규모로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모피트는 청소년기에는 특유의 욕구가 있으며 비행이나 범죄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대규모의 한정비행자들이 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모피트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유의 욕구로 지적한 사항은 독립성(autonomy)의 추구하고 성인역할(adult role)에 대한 갈망이었다⁹⁾. 특히 현대사회는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생물학적 성숙은 과거에

8) Bartusch, D.R.J., D.R. Lynam, T.E. Moffitt. and P.A. Silva. "Is age important? Testing a general versus a developmental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5. 1997: Pp.13-48; Paternoster, R. & R. Brame.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 1997: Pp.49-84.

비해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지만 전문화된 취업시장의 요구로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시기는 점차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청소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충분한 성숙의 단계에 들었지만, 성적 욕구를 억압해야 하며, 물질적 소유욕을 인내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어른들에 의존해야 하는 등 성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인내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생물학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의 간극으로 인하여 욕구좌절을 겪는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생애지속범죄소년은 매우 대비된다. 지속범죄소년들은 주위의 규제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조기 성경험 등 일반소년들이 희구하는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향유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한정비행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유는 욕구좌절을 겪는 일반소년들이 주위의 지속범죄소년들이 독자성이나 성인역할을 향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의 행위를 모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피트는 일반소년들이 지속범죄소년의 범죄를 모방하는 학습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이점들을 지적하였다. 첫번째는 학습과정에서 양자간 감정적 애착이나 친밀한 의사소통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독자성을 희구하는 일반소년들은 지속범죄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성인의 모습에 가깝다 즉 하나의 모형으로 인식할 뿐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친밀한 상호작용활동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모방의 경우에 지속범죄소년과의 양적 관계가 질적 관계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지속범죄소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혹은 이들의 비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양적 관계가 비슷한 태도나 친구간의 애착 등의 질적 관계보다 모방과정에 있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좌절의 소년들이 주위의 지속범죄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태도 변화를 한 이후에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친구의 행동을 모방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피트는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비행친구집단은 애착이나 충성심이 없고 매우 불안정하며 상호이용하는 관계

9) Moffitt. 앞의 책. Pp.24-39.

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지속범죄소년은 그들의 범죄활동에 한정소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반면에 한정소년들은 지속범죄소년들로부터 성장기적 좌절을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모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한정적으로 비행이 증가하는 이유를 비행의 상징적 가치부여기능과 신분강화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예컨대 한정비행소년들은 비행을 통하여 어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능력과 어른들의 허가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은 성인생활에 진입했다는 신분강화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성관계, 음주, 흡연, 약물 등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시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기도 이제는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애그뉴의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독립성추구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모피트의 견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계급, 가정관계, 학교적응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진 청소년들일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비행은 만연할 수 밖에 없으며 소년기의 비행은 인간발전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까지 하였다¹⁰⁾.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많은 비행을 저지른 한정범죄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범죄를 그만두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모피트는 상황변화, 인식의 변화, 낮은 현시적 불이익과 축적적 불이익 등 세가지 측면에서 범죄단절의 이유를 거론하였다. 우선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비행자들은 이전에는 비행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었던 성인역할을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급격한 상황변화를 겪게 된다. 상황변화

10) 모피트는 연구가 필요한 대상은 오히려 청소년기에 아무런 비행도 저지르지 않은 소년들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유형으로 생물학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과의 간극을 경험하지 못하는 소년들과 주위에서 범죄모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소년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1) 성장속도가 미진한 경우, 2) 특정종교와 인종집단과 같이 성인역할을 조기에 부여하는 집단, 3) 기숙생활과 같이 범죄모형이 구조적으로 단절된 경우, 4) 성격장애(과도한 의존심, 무관심, 방임, 주의부족, 나태, 공포심) 등의 경우에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로 인하여 비행의 긍정적 기능이나 상징적 의미는 퇴색하고 이에 따라 한정 비행자들은 비행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인식의 변화이다. 즉 나이가 들에 따라 한정비행자들은 비행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피트가 주목했던 인식변화는 전념비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한다는 것으로 한정비행자들은 비행을 저지르면 처벌과 비공식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한정비행자들의 경우는 비행을 유발했던 원인이 성장과정상의 독립성 욕구와 비행친구의 영향과 같은 학습 요인이었으며 지속범죄자들과는 달리 성격장애나 인지능력 자체에 있어 큰 결함은 갖지 않은 상태이다. 한정범죄자들은 현시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또한 청소년기에 들어서야 비행에 접함으로써 비행참여기간이 짧아 축적적 불이익으로 인한 폐해도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모피트는 한정범죄자들은 쉽게 범죄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¹⁾.

2. 발전긴장론

발전긴장론을 제안한 학자는 애그뉴이다¹²⁾.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소수의 만성범죄자가 일생동안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까닭과 일정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일시범죄자 문제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이란 애그뉴가 기존의 여러 긴장이론들을 종합한 것으로 타인들과의 긴장관계를 중요한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이론이다¹³⁾. 일반긴장이론에서 애그뉴는 긴장이 유발되는

11) 더불어 모피트는 누적적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서 범죄단절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정범죄자의 경우도 비행으로 인하여 임신, 교육기회의 박탈, 시설수용의 경험 등을 겪었을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단절을 위해서 더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 Agnew, R.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A strain theory explanation.". In T.P. Thornberry (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1997: Pp.101-132.

계기를 1)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을 타인들이 방해할 때, 2) 의미있는 가치의 대상이 빼앗길 때, 3) 본인에게 해악적인 가치의 대상이 가해질 때 등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긴장관계는 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또한 부정적 감정은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범죄행위도 결국은 긴장관계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의 하나로 보았다¹⁴⁾. 그리고 애그뉴는 특정한 상태를 긴장관계로 인지하는 정도는 궁극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비슷한 긴장관계라도 행위자에 따라 달리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¹⁵⁾. 뿐만 아니라 긴장관계로 인지된 상태에 대해서 개인별로 적응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어떤 사람은 긴장관계에 들었을 때에 범죄적 대응을 하고 다른 사람은 비범죄적 대응을 선택하는 등 사람들은 저마다의 대응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긴장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관계, 긴장관계로부터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정도, 긴장관계에 대한 대응방법의 개인별 차이 등을 중심으로 범죄발생을 설명한다. 다음에서는 애그뉴가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소수의 만성범죄자에 의한 범죄지속현상과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한정비행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본다.

애그뉴도 범죄지속현상의 일부는 어렸을 때에 형성된 성향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개인성향과 관련하여 애그뉴가 특히 주목했던 사항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성격장애였으며, 이같은 성향은 생물학적 영향과 더불어 가족의 부적절한 조기사회화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두 가지 성향과 함께 애그뉴가 특히 관심을 두었던 성향은 문제해결능

13) Hoffman, J P. & F.G. Cerbone.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nquency escalation in early adolescence." *Criminology* 37. 1999: Pp.343-373.

14) 범죄를 "긴장을 완화하고, 보복을 찾고,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긴장이론에서 상정하는 범죄의 성질을 잘 대변한다.

15) 그렇다고 해서 행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임의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긴장이론이 주목하는 사항은 어떤 주어진 상태를 대부분 긴장관계로 생각하지만 정도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같지 않다는 것으로 극단적인 상대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력이었다. 인내력이나 성격장애는 대체로 유아기 때에 형성되지만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는 아동기 후반에 나타난다고 지적함으로써 애그뉴는 앞서의 모피트보다 가족 등을 통한 사회화경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애그뉴에 의하면 아동기의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아동들은 1) 주위환경에 있는 여러가지 암시(hint)들을 발견하고, 2) 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3) 반응방법을 선택하고, 4) 반응의 예견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5) 선택된 반응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지만 아동기 사회화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문제해결능력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기 사회화가 잘못되면 그러한 사람은 환경의 여러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공격적인 암시들에 관심을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우호적인 행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며,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표출하며, 범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반응방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낮은 인내력, 성격장애, 문제해결능력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애그뉴는 한 마디로 공격성향(aggression)이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였다¹⁶⁾.

공격성향의 사람이 범죄지속현상에 빠져드는 과정에 대해서 애그뉴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의 두 가지 경로를 지적하였다. 직접경로는 공격성향의 사람은 그 기질적 특성에 의해 쉽게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이다. 공격성향의 사람은 성격장애, 인내력부족, 문제해결능력의 결핍 등으로 적대적 상황을 유발하는 경향이 크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반사회적 행위를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쉽게 선택함으로써 범죄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간접경로는 주위 사람들이 공격성향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개입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공격성향의 사람은 화를 잘 내며, 만족감을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 동료관계, 학교생활, 직장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원만한

16) Agnew. 앞의 책: p.109.

대인관계를 갖기 어려우며 주위사람들도 호감어린 반응으로 이들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주위사람들의 비우호적 반응은 당사자에게 분노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공격성향의 사람은 범죄행위로 자신의 분노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간접경로의 또다른 형태는 나쁜 환경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위사람들이 배척함으로써 공격성향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관계로부터 이탈하여 범죄집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안정된 직업을 구하고 정상적인 배우자를 얻기가 어려워 나쁜 환경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므로써 범죄적 행위습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애그뉴는 범죄지속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조기에 형성된 공격성향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인하여 일반긴장이론의 세 요인 즉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렵고, 부모나 선생의 언어적 물리적 학대 등 해악적인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친구나 좋은 직업과 같이 바람직한 가치의 대상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그뉴는 공격성향이 성장과정 동안에 불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공격성향은 주위환경의 의해 변화될 수 있는데 특히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성인기의 시작과 같이 중요한 역할전이를 겪는 과정에서 공격성향이 변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애그뉴는 사회환경이 공격성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앞서 모피트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한정비행현상에 있어서 애그뉴가 주목하는 사항은 긴장요인의 변화이다. 즉 청소년기에 들어 한정적으로 비행이 폭증하는 까닭은 이때에 긴장관계가 많아지며, 긴장관계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비행행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긴장요인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애그뉴가 청소년기에 들어 발생하는 긴장요인의 변화로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긴장관계의 증가

청소년기에 들면서 긴장관계가 증가하는 현상은 여러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인간관계면에서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의 범위와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소년들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¹⁷⁾. 예컨대 초등학교를 떠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청소년들이 맺는 대인관계의 범위는 확대되며 또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접하는 인간관계들은 상황마다 별개의 상호작용 방식이 요구되므로 해당소년들은 주위의 인간관계들에 늘 주목해야 하며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등 인간관계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긴장관계에 들게 된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도 긴장관계의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때의 친구관계는 확연한 습관이나 규범에 의해 유지되기 보다는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은어나 사회적 암시 등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왕따되는 것을 피하고 원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의 미묘한 부분과 은밀한 상징들에 항상 주목해야 하므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계속적인 긴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부과하는 요구도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긴장요인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학교규율을 부과하며, 학생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하며, 학업성취나 성적향상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 등 학교생활 자체가 이들에게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용한다. 평가기준의 다원화도 긴장관계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과 같이 단일 기준만이 적용되었지만 청소년에 들어 주위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야, 외양도 좋아야 하는 등 평가기준이 다원화됨으로써 청소년들은 그만큼 많은 긴장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목표추구면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들에 대한 추구가 제도적으로 차단됨으로써 항상적으로 높은 긴장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그뉴는 청소년들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로 어른들로부터의 독자성과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두가지를 들었다¹⁸⁾. 즉 청소년

17) Simmons, R.G. & D.A. Blyth. Moving into Adolescence.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87.

년들은 부모나 초등학교 선생들에 의해 지도되었던 세계를 떠나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독자성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되며 또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반응에 많은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의 경우에 독자성을 획득하고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구가할 수 없다. 학교규율은 이 시기에 더욱 엄격하게 집행됨으로써 독자성을 제한하며 가정의 부모들도 자녀의 복장, 외모, 친구관계, 귀가시간 등의 일상적인 사항들에까지 관여함으로써 독자성의 추구를 제한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경우도 친구집단 내부에서의 높은 경쟁과 인기구가를 하는데 필요한 사회화기술, 외모, 지능, 좋은 복장의 구매비용, 경비 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힘든 일이다.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목표추구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거나 목표추구에 필요한 자원이 빈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좌절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2) 인지형식의 변화

한정비행현상의 증가와 관련하여 애그뉴가 주목했던 또다른 사항은 청소년기에 들어 사물에 대한 인지형식이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애그뉴는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번째는 인지능력의 향상이다. 아동기는 역할체험이나 다양한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구체적 측면에서 대상을 파악하고 자기입장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들은 추상적 사고의 훈련과 역할경험의 축적으로 외형과 실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과거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많은 종류의 불안감이나 불평을 이때에 들어 느끼기 시작함으로써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

18) Agnew. 앞의 책: Pp.117-118.

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소문이나 풍문을 듣고서도 감정적 굴곡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지능력이 향상된 중고교 시절엔 주위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에 대한 중요한 준거들이 될 뿐만 아니라 소문이나 풍문의 간접적인 얘기들을 체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의무감이나 기대수준의 증가도 청소년들이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과거 아동기에는 자아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주위환경을 해석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들어 추상적 행위기준이나 일반윤리 등에 대한 인식능력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의 자아중심적인 기준으로부터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대수준들을 적용하게 된다. 성인기에는 이 같은 추상적 기대수준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기대수준을 낮추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그렇지 못함으로써 높은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위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변화들이 청소년기에는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¹⁹⁾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현저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긴장요인의 증가, 주위사람들에 대한 관심증가 등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에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주위환경들도 본인의 증대된 부담감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됨으로써 아동기에 비해 주위환경을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3) 비행적 긴장대처경향

한정비행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애그뉴가 주목했던 사항은 청소년기에는 비행을 통하여 긴장관계에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긴장

19) Larson, R. & M. Ham. "Stress and 'Stress and Storm' in early adolescence: The relationships of negative events with dysphore a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93: Pp.130-140.

요인의 증가와 인지형식의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부정적인 감정상태에 놓일 개연성이 크다. 비행에 의존하여 부정적 감정을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첫번째 이유는 청소년들은 이때까지 부정적 감정의 대처와 관련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였을 때에 주위 환경으로부터 긴장을 겪고 부정적 감정상태에 빠져들면 부모의 도움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들은 부모와 감정적 연대면에서 이탈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겪는 경험들을 부모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변화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것과 같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더불어 성인들이 활용하는 여러가지 대처방안들이 이들에게는 가용하지 않다. 때문에 자신들이 겪는 부정적 환경변화에 합리적 대처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비행에 의존하게 되는 두번째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과 자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나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적응의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학교를 바꿀 수 없으며 자기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주위사람이나 친구들과도 관계도 쉽게 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권한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정적 감정상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선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물리적 힘에 의존하여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자체가 비행적 대처가 쉽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사회통제의 정도는 느슨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의 몰입정도도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비행적 대처방안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비용이나 손실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취급이 공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체면치레와 같이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됨으로써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서 비행적 대처가 용이하게 선택될 수 있다.

애그뉴의 경우도 긴장요인의 증가, 주위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형식의 대두, 비행적 대처가 용이한 상황적 특성 등을 한정비행현상의 원인

으로 지적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는 발전과정상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애그뉴는 모피트처럼 모든 청소년들이 한 정비행자가 되리라고 가정하지는 않았다. 청소년들 중에서 소규모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동질적인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친구들과 적게 어울리는 성격의 소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년들에 비해서 긴장을 적게 겪기 때문에 한 정비행현상에 빠져드는 경향이 적으며, 또한 어른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경우도 발전과정상의 긴장요인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적 대처방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긴장론은 비행의 지속이나 단절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이론들과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발전긴장론은 개인의 소질중에서 사회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문제해결능력을 범죄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두번째로 발전긴장론은 청소년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발전학습론이나 이후에 설명할 발전통제론의 경우는 부모, 선생, 친구 등과의 관계에 치중하지만 발전긴장론은 주위이웃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호작용형태까지 부정적 영향의 범위를 폭넓게 고려하였다. 세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지능력의 차이나 청소년들의 권한이나 이들에 허용된 자원까지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회피 혹은 완화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가 외부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도식을 회피하고 행위자에 의해 제한적이지만 선택되어지는 행위라는 측면을 부각하였다.

3. 발전통제론

기존의 사회유대이론이 강조했던 사항은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관계의 수준이다. 사회유대이론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까닭은 사람들이 사회와 맺는 사회적 유대의 작용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유대이

론은 사회적 유대의 정도가 약화되거나 소멸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범죄나 비행에 빠져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²⁰⁾.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사회유대의 영향은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일정시점에서의 사회유대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유대의 형태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샘슨과 롭은 비행이나 범죄발생을 통제하는 사회유대의 형태는 생애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정의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그만 두는 과정에 대한 생애과정별 사회유대의 영향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²¹⁾.

사회유대이론을 반영하여, 샘슨과 롭의 발전통제론은 사회구성원들을 상호연관시키거나 개인을 보다 광범위한 사회제도에 연계시키는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유대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개인의 생애단계에 있어 중요한 사회유대의 형태는 단계별로 서로 다르며 특정 개인의 범죄 지속여부는 생애단계별 사회유대의 차이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렸을 때의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학교에 대한 사회유대와 성인기에 들어 직장에 대한, 결혼에 대한, 동료 등에 대한 사회유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범죄지속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샘슨과 롭은 어렸을 때에 형성된 범죄성향의 개인별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유대의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록 어렸을 때에 조기징후, 행동이상, 낮은 자아통제력 등을 보인 사람들이 만성범죄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범죄성향이 성장단계에 걸쳐 발현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기비행에 의해 이후의 사회유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렸을 때에 형성된 문제성향 혹은 공격성향의 직접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대신에 샘슨과

20)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21) Sampson, R.J. & J.H. Laub. Crime in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133-161.

롭은 전환점(turning point)과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발전통제론은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회생활을 중시한다²²⁾. 그중에서 전환점이란 특정개인의 경우에 그 사람의 이후 발전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활경험을 지칭한다. 즉 취업연령에 들어 직업을 갖는다든지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는 일과 같은 전환점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의 발전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범죄자들의 경우에 전환점은 이들이 범죄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환점과 관련하여 샘슨과 롭은 대두의 시점이나 그 계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특별한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궤적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만 서술하였다²³⁾. 즉 전환점이란 한 개인의 생애 전과정에 중요한 미치는 사회적 전이(social transition)이며 전환점은 우연하게 대두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생활방식에 따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대두한다는 것이다. 샘슨과 롭은 전환점은 이후 특정개인의 생애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결혼의 경우에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환점으로 작용하지만 누구와 언제 어떤 결혼을 하는가에 따라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경우에 불행한 결혼은 그 사람의 범죄지속을 악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원만한 결혼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샘슨과 롭은 전환점에 의하여 범죄발전의 경로가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범죄자의 생애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결혼과 직업경력을 지적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비록 어렸을 때에 문제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혼인이나 안정된 직업은 당사자들의 사회유대 수준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생활로의 환원시키는 전환점의 역할을 한

22) Laub, J.H. & R.J. Sampson. "Turning points in the life course: Why change matters to the study of crime." *Criminology* 31. 1993: Pp.301-325.

23) Sampson과 Laub. 앞의 책: p.143.

다는 것이다²⁴⁾.

샘슨과 롭은 차후범죄나 비행의 개연성은 과거범죄나 비행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과거비행이 차후비행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샘슨과 롭은 누적적 불이익을 지적하였다. 즉 과거비행으로 인하여 누적적 불이익이 생겨나며 이로 인하여 사회유대의 결손이 발생하고 차후비행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²⁵⁾. 샘슨과 롭은 누적적 불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누적적 일관성(cumulative continuity)으로 과거비행으로 인하여 학교실패, 취업의 어려움 등과 같이 사회제도로부터 단절되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적 일관성(interactional continuity)으로 상호작용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장하면서 누적적 일관성이나 상호작용적 일관성으로 인하여 이후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샘슨과 롭은 누적적 불이익 현상을 가족생활, 학교생활, 동료관계, 직업참여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와 가족사회화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지적되었다. 특히 부모의 감시나 감독이 소홀하거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부모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결손은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간과한 점은 가족의 역할과 범죄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단지 부모에서 자녀로 연결되는 측면만을 분석하였고 부모가 자녀에 적응하는 측면은 무시하였다. 이에

24) 샘슨과 롭은 1993년의 저서(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에서 글록부부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전환점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여기서 군복무, 취업, 결혼 등에 의한 사회유대의 강화는 범죄발전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샘슨과 롭도 물론 개인성향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성향에 대하여 생물학적 차이나 심리적 징후보다는 사회화결과의 산물인 공격성향(좌절에의 낮은 관용도, 곤란한 기질,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을 범죄발생과 관련한 개인성향으로 고려하였다.

대하여 리톤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자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부모양육의 태도가 변화하는 자녀효과를 입증하였다²⁶⁾. 부모와 자식은 상호작용을 했으며, 문제소년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일상적인 양육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렸을 때에 문제성향을 가진 아동의 경우도 이후 다양한 종류의 비행에 빠져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올웨스²⁷⁾은 어렸을 때에 고집이 세거나 성질이 급한 아동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관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더욱 공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조기비행은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⁸⁾. 교사의 경우에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되거나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해당학생은 학교에 대해 애착을 갖기가 어렵고 교사의 냉담은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에의 적응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 맺는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학생들은 주위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배척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이들이 교육기관에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회생활에의 유대관계 측면에서도 조기비행은 많은 누적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조기비행과 이에 대한 사법처벌은 일상적인 사회로부터 조기비행소년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생활기회를 박탈한다. 이때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성향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사회로부터의 단절이나 생활기회의 차단은 다른 사회생활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비행으로 사회제도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단절은 다른 생활기회에의 접근마저 차단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이 비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유대

26) Lytton, H.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990: Pp.683-697.

27) Olweus, D.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980: Pp.644-660.

28)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글루크부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애정결핍이 비행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기 보다 비행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Glueck, S. & E. Glueck.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in Perspectiv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8).

관계의 약화가 초래되는 현상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지적되었다. 내긴과 월드포겔²⁹⁾은 런던 코호트 소년들의 경우에 구금의 경험은 나중에 노동시장 참여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하겐³⁰⁾은 조기비행은 이후의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하겐의 연구에서는 비행의 저지를 당시의 범죄성향을 고려하였는데 범죄성향의 차이와 관계없이 비행 자체가 이후의 직업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베리와 크리스텐슨의 연구³¹⁾에서도 비행은 이후의 취업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개인의 성향차이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맨³²⁾도 범죄나 처벌경험은 노동시장의 참여기회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샘슨과 롭은 범죄적 소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로 인하여 사회유대관계가 영향을 받으며 사회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차후범죄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발전론적 연구들은 비행의 발전이나 지속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성향이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전통제론은 어렸을 때에 형성된 개인성향이나 심리적 특성보다는 초기의 사회적 행동이 이후의 발전단계에서 맺게 될 가족관계, 학교생활, 동료관계, 직업선택 등에 유발시키는 문제들을 중요시하였다. 조기비행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학업에 실패하고,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우울심리를 경험하고, 비행친구와 교제하는 등의 이차적 사회유대문제가 유발되며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은 이 같은 누적적 불이익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9) Nagin, D. & J. Waldfoegel. *The Effects of Criminality and Conviction on the Labour Market Status of Young British Offenders*. Pittsburgh: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2.

30) Hagan, J. "The social embeddedness of crime and unemployment." *Criminology* 31. 1993: Pp.465-491.

31) Thornberry, T.P. & R.L. Christenson. "Unemployment and criminal involvement: An investigation of reciprocal causal struct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984: Pp.398-411.

32) Freeman, R. *Crime and the Employment of Disadvantaged Youth*.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1.

4. 연구가설의 설정

전술한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 등은 나름대로 비행의 상승화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지만 각각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인과과정이 타당한지는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상승화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론으로 도출하여 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A. 발전학습론 가설

A-1. 문제성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상승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

A-2. 비행학습의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승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

B. 발전긴장론 가설

B-1.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많이 겪는 청소년일수록 상승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

C. 발전통제론 가설

C-1. 사회적 유대에 문제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승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조작적 정의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차까지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2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 III-1> 중2 패널 1차년도 12개 시도별 표집학교수(제주도 제외)

구 분	중학교 2학년 학생수	중학교 수	중학교 2학년 학급수	목표 표본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	표집 학교수
총 계	618,100	2,808	17,504	2,967	35	104
서울특별시	120,826	358	3,591	580	34	20
부산광역시	48,040	165	1,374	231	35	8
대구광역시	36,529	111	977	175	37	6
인천광역시	36,596	103	912	176	40	6
광주광역시	20,529	71	533	99	39	4
대전광역시	20,227	73	570	97	35	3
울산광역시	16,478	46	432	79	38	3
경기도	135,084	434	3,436	648	39	21
강원도	19,117	159	573	92	33	4
충청도	42,286	310	1,324	203	32	8
전라도	48,482	448	1,582	232	31	8
경상도	73,906	530	2,200	355	34	13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표 III-2> 중2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조사성공률(단위 : 빈도, %)

	조사성공 사례수(%)	학부모동의 거절사례수(%)	합계
서울특별시	585 (93.2)	43 (6.8)	628 (100.0)
인천광역시	198 (88.4)	26 (11.6)	224 (100.0)
경기도	777 (92.0)	68 (8.0)	845 (100.0)
강원도	123 (93.9)	8 (6.1)	131 (100.0)
대전광역시	102 (94.4)	6 (5.6)	108 (100.0)
충청도	258 (96.6)	9 (3.4)	267 (100.0)
광주광역시	136 (91.3)	13 (8.7)	149 (100.0)
전라도	245 (92.1)	21 (7.9)	266 (100.0)
부산광역시	254 (94.4)	15 (5.6)	269 (100.0)
울산광역시	105 (95.5)	5 (4.5)	110 (100.0)
대구광역시	212 (95.1)	11 (4.9)	223 (100.0)
경상도	454 (95.2)	23 (4.8)	477 (100.0)
합계	3,449 (93.3)	248 (6.7)	3,697 (100.0)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3.1%인 3,21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III-3>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1)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34	93.2%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4.4%
경기도	773	765	679	88.8%
강원도	123	123	104	84.6%
대전광역시	102	102	100	98.0%
충청도	255	254	246	96.8%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7.1%
전라도	249	247	232	93.9%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6	100.0%
대구광역시	212	212	205	96.7%
경상도	451	450	442	98.2%
합계	3,449	3,417	3,211	94.0%

1) 전학으로 인해 2003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211명) 비율 : 93.1%

※ 조사가능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211명) 비율 : 94.0%

※ 조사대상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122명) 비율 : 90.5%

※ 조사가능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122명) 비율 : 91.3%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된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조작적 정의

1) 학습요인

학습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이용되었는데, 하나는 부모님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한 가정에서의 학습을 나타내는 ‘폭력학습’을 나타내는 복합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어트 척도에 답하도록 하고, 그 값을 모두 합산하였다.

비행친구나 범죄친구는 각각 친한 친구 중에 비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데, 친한 친구 중에 학교에서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 있는 경우가 1, 없는 경우가 0의 값을 가지도록 재코딩되었다. 그리고 범죄를 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친구가 있는 경우가 1, 없는 경우가 0의 값을 가지도록 재코딩되었다.

자기통제력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학교숙제를 제 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의 여섯 문항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한 다음 이것을 다시 합산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을 나타내는 척도를 만들었다.

2) 긴장요인

긴장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이용되었다. 하나는 공부압력을 나타내는 복합변수로서,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벽차

다”, “나는 부모님이 바라는 대학이나 직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의 세 문항을 제시하고, 리커어트 5점 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이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긴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17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합산하여 ‘긴장’을 나타내는 복합변수를 만들었다.

3) 통제요인

통제요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교사에 대한 애착,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의 네가지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 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6문항을 합산하여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 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네 문항으로 질문하고 이것을 모두 합산하였다.

‘교사에 대한 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의 세 문항을 이용하여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트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다음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측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대로 진술된 후자의 3문항은 거꾸로 배열한 다음 합산되었다.

4) 개인적 배경요인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적 배경요인들은 그 나름대로 학습이나, 긴장, 통제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통제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된 변수는 여성, 자가주택소유, 가구소득, 결혼가정여부, 12세 이전 중비행의 다섯 가지이다. 여기서 성별은 여성이 1, 남성이 0이며,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1, 아닌 경우(전세, 월세, 무상, 사택, 임대, 복지시설 등)가 0, 결혼가정인 경우가 1, 아닌 경우가 0, 그리고 12세 이전에 흡연, 음주, 무단 결석을 제외한 중비행을 한 경우가 1, 아닌 경우가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로 코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 비행상습화 현상에 관한 기초분석
3. 비행상습화와 그 관련요인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주제는 청소년의 비행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중단되는지와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1차연도 조사에서 비행한 사람만을 추려내었고, 그 결과 1,753명의 표본을 가려낼 수 있었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배경요인들은 어떤 분포를 나타내며, 1년 간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가주택소유 여부를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전체의 67.3%였는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63.6%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별 변화가 없으나, 30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는 1차 조사에서는 28.7%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26.6%로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가정은 1차 조사에서는 31.3%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25.1%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최하계층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1차 조사에서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가정이 9.7%인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19.3%로 매우 큰 폭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불경기로 인해서 가정이 실직을 한 가정이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자녀의 비행을 유발하는 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경기를 포함한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은 모두 조금씩 그 비율이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올수록 줄어들지만, 유독 서울만은 18.0%에서 23.7%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2에서 중3으로 가는 시기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한 가구가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화(단위 : 빈도, %)

변 수	구 분	1차 조사		2차 조사	
		사례수	백분율 (%)	사례수	백분율 (%)
자가 소유 여부	비자가소유	563	32.7	634	36.4
	자가소유	1157	67.3	1110	63.6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59	9.7	328	19.3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14	31.3	427	25.1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470	28.7	453	26.6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39	14.6	249	14.6
	400만원 초과	257	15.7	246	14.4
거주지역	서울	316	18.0	416	23.7
	강원도	71	4.0	63	3.6
	대전/충남	108	6.2	101	5.8
	충북	78	4.4	75	4.3
	인천/경기	505	28.8	448	25.5
	광주/전남	144	8.2	136	7.8
	전북	50	2.9	47	2.7
	부산/울산/경남	303	17.3	292	16.6
	대구/경북	178	10.2	175	10.0
성별	남자	858	48.9	-	-
	여자	895	51.1	-	-

2. 비행상습화 현상에 관한 기초분석

1) 비행의 분포와 발전

다음의 표는 청소년비행 유형별로 두 번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해당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흡연의 경우 1차 조사에는 전체의 13.3%가 지난 1년 동안 했다고 응답한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10.5%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의 경우는 전체의 30.7%가 1차조사에서 했다고 응답한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전체의 29.0%가 했다고 응답하여 역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단 결석의 경우는 1차

조사에서는 전체의 4.8%가 했다고 응답했는데 비하여, 2차 조사에서는 6.0%가 했다고 응답하여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비행유형에서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가출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4.0%가 했다고 응답한 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약간 줄어든 3.8%가 했다고 응답했고, 1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는 1.1%인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0.8%로 다소 줄어들었다. 폭행의 경우 1차 조사에서 9.0%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대폭 줄어들어 4.6%만이 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싸움도 줄어들었는데 1차에서는 5.4%였던 것이 2차 조사에서는 2.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의 비행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뺑뺑기와 절도는 1차 조사에서는 각각 5.5%와 6.9%였는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각각 3.4%와 3.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원조교제를 한 경우는 0.1%인데 비해서 2차에서는 0%로 나타났다. 조롱과 협박, 왕따의 경우는 1차에서 각각 14.8%와 4.3%, 14.1%이던 것이 2차에서는 각각 6.2%와 2.1%, 3.5%로 많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0.3%이던 것이 2차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단결석은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비행들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음주, 폭행, 패싸움, 절도, 조롱, 협박, 왕따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비행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은 2차 조사의 시기인 중3 때가 중2 때에 비해서 더욱 많이 공부에 전념할 때이며 따라서 본인의 태도도 이전 연도에 비해 달라졌을 것이며, 부모나 교사의 감독이나 통제도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비행의 전반적인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2> 학년별 비행유형별 개입비율(단위 : %, 빈도)

비행유형	조사시기					
	1차(2003)			2차(2004)		
	개입비율	빈도	사례수	개입비율	빈도	사례수
흡연	13.3	458	3,449	10.5	338	3,209
음주	30.7	1,057	3,449	29.0	931	3,209
무단결석	4.8	167	3,449	6.0	192	3,209
가출	4.0	139	3,449	3.8	122	3,209
성관계	1.1	38	3,449	0.8	27	3,209
폭행	9.0	310	3,449	4.6	148	3,209
패싸움	5.4	187	3,449	2.1	68	3,209
뺨뺨기	5.5	189	3,449	3.4	109	3,209
절도	6.9	239	3,449	3.2	104	3,209
원조교제	0.1	5	3,449	0.0	0	3,209
조롱	14.8	512	3,449	6.2	200	3,209
협박	4.3	148	3,449	2.1	68	3,209
왕따시키기	14.1	489	3,449	3.5	113	3,209
성폭행 (성희롱)	0.3	11	3,449	0.3	11	3,209

이러한 분석이 비행의 개입여부를 살펴보는 양적인 측면의 분석이라면, 다음의 표는 비행횟수를 살펴보는 질적인 측면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는 각 비행유형별로 평균적인 비행횟수를 살펴 본 것이다. 먼저 흡연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0.9회 하는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평균 0.8회로 약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주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평균 1.4회 하는데 비해서 1년이 지난 2차 조사에서는 평균 1.6회로 다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단결석도 유사한데 1차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0.2회 무단결석을 하는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조금 증가한 평균 0.3회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이나 성관계는 1차 조사나 2차 조사 모두 각각 평균 0.1회와 0회로 나타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폭행이나 패싸움은 1차 조사에서 각각 평균 0.4회, 0.1회이던 것이 2차 조사에는 0.2회와 0.1회로 다소 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뺨뺨기나 절도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모두 평균 0.3

회인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각각 평균 0.2회와 0.1회로 나타났다. 조롱, 협박, 왕따의 경우는 1차 조사에서 각각 평균 1.2회, 0.2회, 0.4회인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각각 평균 0.8회, 0.3회, 0.1회로 나타나 조롱이나 왕따는 감소했는데 비해서, 협박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조교제나 성폭행 또는 성희롱은 1, 2차 모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비행유형별 평균횟수

비행유형	1차 조사		2차 조사	
	횟수	사례수	횟수	사례수
흡연	0.9	3,334	0.8	3,209
음주	1.4	3,423	1.6	3,206
무단결석	0.2	3,444	0.3	3,208
가출	0.1	3,447	0.1	3,209
성관계	0.0	3,449	0.0	3,209
폭행	0.4	3,447	0.2	3,209
패싸움	0.1	3,449	0.1	3,209
뺑뺏기	0.3	3,447	0.2	3,207
절도	0.3	3,444	0.1	3,206
원조교제	0.0	3,449	0.0	3,209
조롱	1.2	3,426	0.8	3,205
협박	0.2	3,445	0.3	3,207
왕따시키기	0.4	3,443	0.1	3,205
성폭행(성희롱)	0.0	3,449	0.0	3,209

다음의 표는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지난 1년 동안의 비행유무별로 2차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비행유무를 살펴 본 것이다. 우선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586명이었는데, 이 중 2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79명으로 전체의 17.6%가 새롭게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훨씬 높은 차후 비행율을 나타내는데, 2차 조사에서도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31명으로 전체의 57.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2년 동안 비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4> 청소년 비행의 지속여부(단위 : 빈도, %)

1차 조사 비행유무	2차 조사 비행유무		소계
	없음	있음	
없음	1,307 (82.4)	279 (17.6)	1,586 (100.0)
있음	692 (42.64)	931 (57.4)	1,623 (100.0)

df=1 $\chi^2= 540.2$ p<.001

다음의 표는 이러한 비행의 지속여부를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 본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2차 조사에서도 계속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80.9%였고, 새롭게 비행을 시작한 경우가 19.1%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한 경우, 2차 조사에서 비행을 중단한 경우가 46.3%였고, 계속 비행을 지속한 경우는 전체의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조사에서 계속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84.0%, 새롭게 비행을 한 경우가 16.0%로 남학생에 비해 새롭게 한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비행을 중단한 경우가 39.2%였고, 계속 비행을 지속한 경우가 60.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5> 성별에 따른 비행지속여부(단위 : 빈도, %)

1차 조사 시 비행	2차 조사 시 비행					
	남학생			여학생		
	없음	있음	소계	없음	있음	소계
없음	659 (80.9)	156 (19.1)	815 (100.0)	648 (84.0)	123 (16.0)	771 (100.0)
있음	365 (46.3)	424 (53.7)	789 (100.0)	327 (39.2)	507 (60.8)	834 (100.0)

df=1 $\chi^2= 207.9$ p<.001

df=1 $\chi^2= 337.8$ p<.001

다음의 표는 14가지의 비행을 다섯 가지의 비행유형을 묶어본 것이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경험 그리고 성관계 경험은 지위비행으로 묶었는데, 1차 조사에서 이것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70.8%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패싸움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3.7%였다. 그리고 강탈비행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거나(뺏뜯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비행으로서 이것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0.3%였다. 다음으로 협박/따돌림은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하기를 함께 묶은 것으로, 이것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반면 원조교제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한 사람은 1명을 전체의 0.1%밖에 되지 않았다.

<표 IV-6> 비행유형별 분포(1차 조사)

유형	빈도	백분율	사례수	소계
지위비행	1241	70.8	1753	100.0
폭력비행	416	23.7	1753	100.0
강탈비행	356	20.3	1753	100.0
협박/따돌림	56	3.2	1753	100.0
성비행	1	0.1	1753	100.0

다음의 표는 이렇게 다섯 유형으로 나눈 1차 조사 시의 비행유형에 따라, 2차 조사 시의 비행의 지속여부를 살펴 본 교차표이다. 지위비행의 경우 1차에서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35.4%가 2차에서도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1차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차 조사에서 66.7%가 비행을 했다고 응답하여 지위비행을 한 사람이 2차 조사에서 비행을 많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의 경우 1차에서 폭력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55.3%가 2차 조사시에도 비행을 지속하였고, 폭력비행을 한 청소년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비행을 지속한 경우는 64.1%로 보

다 더 높았다.

강탈비행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강탈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54.5%가 2차 조사에서 비행을 계속했는데 비해서, 1차 조사에서 강탈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68.6%가 1년 후에도 비행을 지속하여, 다른 비행들에 비해 비교적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따돌림 비행은 1차 조사에서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56.8%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1차 조사에서 폭력/따돌림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75.0%가 비행을 2차에서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행을 지속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비행의 경우 1차에서 한 청소년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논의가 어렵다.

이 결과는 논의가 어려운 성비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4가지 비행유형 중에 폭력/따돌림 비행이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탈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유형 간의 차이보다는 대체로 비행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지속 비율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IV-7> 비행유형(1차)별 비행지속여부(단위 : 빈도, %)

유형(1차)	구분	2차 조사시 비행여부			카이제곱
		중단	지속	소계	
지위비행	없음	303 (64.6)	166 (35.4)	469 (100.0)	df=1 $\chi^2=130.16^{***}$
	있음	389 (33.3)	765 (66.7)	1154 (100.0)	
폭력비행	없음	556 (44.7)	668 (55.3)	1,244 (100.0)	df=1 $\chi^2=9.22^{**}$
	있음	136 (35.9)	243 (64.1)	379 (100.0)	
강탈비행	없음	589 (45.5)	706 (54.5)	1,295 (100.0)	df=1 $\chi^2=21.24^{***}$
	있음	103 (31.4)	225 (68.6)	328 (100.0)	
폭력/따돌림	없음	680 (43.2)	895 (56.8)	1,575 (100.0)	df=1 $\chi^2=6.29^*$
	있음	12 (25.0)	36 (75.0)	48 (100.0)	
성비행	없음	691 (42.6)	931 (57.4)	1,622 (100.0)	
	있음	1 (100.0)	0 (0.0)	1 (100.0)	

다음의 표는 만 12세 이전의 중비행 여부별로 비행의 지속여부를 살펴 본 것이다. 우선 만 12세 이전에 흡연, 음주, 무단결석의 세 가지 다소 가벼운 비행을 제외한 비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비행의 지속여부를 살펴보면,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56.6%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69.0%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피트의 설명과 같이 조기에 비행이나 범죄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비행을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IV-8> 만 12세 이전 중비행 여부별 비행지속여부(단위 : 빈도, %)

만 12세 이전 중비행	비행지속여부		사례수	카이제곱
	중단	지속		
없음	600	784	1,384	df=1 $\chi^2=8.86^{**}$
	(43.4)	(56.6)	(100.0)	
있음	49	109	158	
	(31.0)	(69.0)	(100.0)	

다음의 표는 만 12세 이전 중비행 여부별 평균 비행건수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역시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또한 비행의 빈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1차와 2차 조사가 각각 9.92건과 7.89건이었는데 비해서,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1차와 2차가 각각 10.58건과 11.78건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9> 만 12세 이전 중비행 여부별 평균 비행건수

만 12세 이전 중비행	비행건수			
	1차		2차	
	평균건수	사례수	평균건수	사례수
없음	9.92	1,361	7.89	1,372
있음	10.58	147	11.78	156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비행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나 무단결석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2 시기에 비행을 경험한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중3 시기에 비행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행이나 범죄를 시작하는 진입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율을 가지고 활동하며,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환경의 변화

여기에서는 1차 연도에 비행을 한 청소년들을 추려내어, 비행의 상습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변수들이 1차와 2차의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예를 들어 1차 조사에서 측정된 폭력의 학습이나 비행친구의 수, 그리고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애착, 시험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1년의 간격을 두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학습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폭력학습은 1차 조사에서 평균 7.8회이던 것이 2차 연도에는 7.7회로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중에 학교에서 정학, 근신, 퇴학 등을 받은 비행친구의 평균수는 1, 2차 조사 모두 0.5명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서에 잡혀간 친한 친구의 수는 1차 조사에서 평균 0.4명에서 2차 조사에서는 평균 0.7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긴장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부에 대한 압력은 1차 조사에서 평균 10.1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평균 9.5로 낮아졌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긴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차 조사에서 평균 스트레스는 48.1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46.7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지난 1년 동안 긴장요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제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부모의 통제가 1차에는 각각 19.4와 12.4였던 것이 2차 조사에서는 각각 평균 20.1과 13.1로 나타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교사에 대한 애착은 1차가 평균 7.1이었으나 2차에서는 평균 7.7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은 1차에서 11.1이었던 것이 2차에서는 10.8로 나타나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1차 조사에서 17.2이던 것이 2차 조사에서는 평균 17.1로 자기통제력이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0> 독립변수들의 변화

유형	2003년도		2004년도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부모애착	19.4	1,751	20.1	1,613
부모감독	12.4	1,753	13.1	1,623
가정에서의 폭력학습	7.8	1,749	7.7	1,614
낮은 자기통제력	17.2	1,753	17.1	1,623
공부압력	10.1	1,752	9.5	1,621
교사에 대한 애착	7.1	1,751	7.7	1,621
친구에 대한 애착	11.1	1,748	10.8	1,622
친한 친구	9.5	1,746	9.1	1,623
친한 친구와의 애착	16.4	1,751	16.4	1,751
비행친구	0.5	1,742	0.5	1,622
범죄친구	0.4	1,741	0.7	1,622
친구들의 비행횟수	5.3	1,649	5.7	1,594
자아존중감	18.2	1,751	18.3	1,623
긴장	48.1	1,746	46.7	1,609

요약하면 중2에서 중3으로 가는 시기에서 청소년들의 긴장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행에 대한 학습이나 통제는 대체로 다소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특히 친구에 대한 애착은 줄고 교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것은 고교입시를 위해서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비중이 친구에 비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행상습화와 그 관련요인

여기에서는 주로 비행의 지속여부와 다른 여러 이론적 변수들의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비행상습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학습관련요인, 긴장관련요인, 그리고 통제관련요인의 순으로 그 관계의 정도를 살펴본다.

1) 학습요인과 비행상습화

다음의 표는 비행학습과 관련된 요인들과 비행의 지속여부를 교차시켜 본 것이다. 우선 1차 조사에서 측정된 부모의 폭력에 대한 학습과 비행의 지속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폭력을 적게 학습한 사람과, 중간 정도로 학습한 사람, 그리고 많이 학습한 사람의 경우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각각 56.0%, 55.5% 그리고 60.0%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의 폭력을 많이 학습할수록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1차 조사에서 근신, 정학, 퇴학을 당한 비행친구가 없는 경우는 55.5%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있는 경우는 66.5%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서에 잡혀간 친구가 없는 경우는 55.6%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있는 경우는 69.9%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이나 범죄를 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66.8%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중간 정도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57.1%가,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47.2%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56.4%가 비행을 지속하는데 비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63.8%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학습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변수(1차)	구분	지속여부(2차)		카이제곱
		중단	지속	
부모폭력학습	하	241(44.0)	307(56.0)	df=2 $\chi^2= 2.7$ p<.001
	중	220(44.5)	274(55.5)	
	상	231(40.0)	346(60.0)	
비행친구	없음	597(44.5)	743(55.5)	df=1 $\chi^2= 11.4$ p<.001
	있음	91(33.5)	181(66.5)	
범죄친구	없음	624(44.4)	781(55.6)	df=1 $\chi^2= 15.1$ p<.001
	있음	62(30.1)	144(69.9)	
낮은 자기통제력	하	273(52.8)	244(47.2)	df=1 $\chi^2= 11.4$ p<.001
	중	231(42.9)	308(57.1)	
	상	188(33.2)	379(66.8)	

2) 긴장요인과 비행상습화

긴장요인으로 선정된 공부압력과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비행의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공부압력의 정도가 하, 중, 상이 각각 56.0%, 55.7%, 61.9%로 매우 일관된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공부압력이 높은 경우에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긴장인 스트레스에서도 확인되는데, 긴장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더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긴장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변수(1차)	구분	지속여부(2차)		카이제곱
		중단	지속	
공부압력	하	260(44.0)	331(56.0)	df=2 $\chi^2= 4.5$ p<.001
	중	280(44.3)	352(55.7)	
	상	152(38.1)	247(61.9)	
긴장	하	250(47.4)	277(52.6)	df=2 $\chi^2= 7.9$ p<.001
	중	222(40.1)	321(59.1)	
	상	216(39.5)	331(60.5)	

3) 통제요인과 비행상습화

통제요인으로 검토된 변수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감독, 교사에 대한 애착,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이다. 다음의 표는 이 각 변수들을 비행의 지속여부와 교차시킨 것이다. 우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지속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한 사람은 60.8%가 비행을 지속한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간 정도이거나 강한 사람의 경우 각각 56.5%, 55.0%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도 유사하게 비행을 중단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약한 경우 61.9%가 비행

을 계속했는데 비해서, 중간 정도이거나 강한 경우 각각 54.0%와 55.1%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애착 또한 유사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사에 대한 애착이 약한 경우 66.8%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교사에 대한 애착이 중간 정도이거나 강한 경우 각각 54.1%와 53.4%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56.4%가 비행을 지속한데 비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63.8%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통제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변수(1차)	구분	지속여부(2차)		카이제곱
		중단	지속	
부모애착	하	209(39.2)	324(60.8)	df=2 $\chi^2= 4.0$ p<.001
	중	226(43.5)	293(56.5)	
	상	256(45.0)	313(55.0)	
부모감독	하	236(38.1)	384(61.9)	df=2 $\chi^2= 8.7$ p<.001
	중	246(46.0)	289(54.0)	
	상	210(44.9)	258(55.1)	
교사애착	하	147(33.2)	296(66.8)	df=2 $\chi^2= 22.3$ p<.001
	중	344(45.9)	405(54.1)	
	상	200(46.6)	229(53.4)	
긍정적 자아개념	하	34(36.2)	60(63.8)	df=2 $\chi^2= 1.7$ p<.001
	중	545(42.9)	725(57.1)	
	상	112(43.6)	145(56.4)	

이러한 통제요인들이 비행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깊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일관되게 비행의 지속을 막는 요인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강도에 있어서도 다소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후의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배경요인과 비행상습화

여기에서는 개인적 배경요인과 비행의 지속여부를 교차시켜 비행상습화에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우선 성별로는 여학생이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60.8%로, 남학생의 53.7%에 비해 훨씬 더 비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60.2%가 비행을 지속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5.6%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자녀가 비행을 더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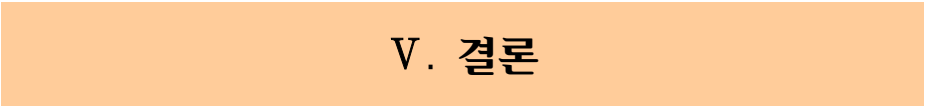
이것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가정 자녀의 61.8%가 비행을 지속하여 가장 지속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소득대가 반대로 4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대의 가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높으며,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가정 자녀가 가장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65.1%로 가장 비행을 많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대구/경북, 서울, 대전/충남, 인천/경기,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또 결손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결손가정이 61.3%로 비결손가정의 67.0%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개인적 배경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변수	구분	지속여부		카이제곱
		중단	지속	
성별	남자	365(46.3)	424(53.7)	df=1 $\chi^2= 8.2$ p<.001
	여자	327(39.2)	507(60.8)	
자가 소유 여부	비자가소유	480(44.4)	600(55.6)	df=1 $\chi^2= 3.1$ p<.001
	자가소유	204(39.8)	309(60.2)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58(38.2)	94(61.8)	df=4 $\chi^2= 4.7$ p<.001
	101만원 - 200만원	210(43.5)	273(56.5)	
	201만원 - 300만원	187(42.2)	256(57.8)	
	301만원 - 400만원	106(48.0)	115(52.0)	
	400만원 초과	90(39.8)	136(60.2)	
거주 지역	서울	113(39.7)	172(60.3)	df=8 $\chi^2= 13.8$ p<.001
	강원도	22(34.9)	41(65.1)	
	대전/충남	41(41.0)	59(59.0)	
	충북	27(35.5)	49(64.5)	
	인천/경기	199(44.3)	250(55.7)	
	광주/전남	62(45.6)	74(54.4)	
	전북	28(59.6)	19(40.4)	
	부산/울산/경남	134(45.9)	158(54.1)	
대구/경북	66(37.7)	109(62.3)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이하	26(38.8)	41(61.2)	df=5 $\chi^2= 1.3$ p<.001
	중학교	53(40.8)	77(59.2)	
	고등학교	298(43.3)	390(56.7)	
	전문대	52(44.8)	64(55.2)	
	대학교	205(43.7)	264(56.3)	
	대학원 이상	36(40.5)	53(59.5)	
결혼 가정	비결혼가정	644(43.0)	855(57.0)	df=1 $\chi^2= 0.8$ p<.001
	결혼가정	48(38.7)	76(61.3)	



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V. 결론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에서 우려되는 현상은 비행의 상습화가 가속화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비행은 과거에 비록 양적(兩的)으로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일과성(一過性)에 그치는 것으로, 문제행위를 한번만 하고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후에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상습화경향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2003년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비행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비행이 일과성일 때에 해당청소년은 학교나 가족과의 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습화되면 이들은 청소년의 성장에 필수적인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모들도 더 이상 개선의 기대를 갖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보호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습비행 청소년은 더욱더 비행에 빠져들게 되고, 성인기에 들어서는 정상적 교육수혜의 결핍으로 일탈적 삶에 의존하고 사회의 문제집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비행의 상습화는 이처럼 청소년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성인기 문제집단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상습화가 지속되는 최근의 경향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상습화의 실태를 기술하고, 상습화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음 제1절에서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2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요약

먼저,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했을 때에 비행의 양적 발생추세는 전체 청소년비행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흡연의 경우에 1차 조사에는 전체의 13.3%가 지난 1년 동안 했다고 응답한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10.5%로 줄어들었다. 음주의 경우는 전체의 30.7%가 1차 조사에서 했다고 응답한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전체의 29.0%가 했다고 응답하여 역시 줄어들었다. 반면에 무단 결석의 경우는 1차 조사에서는 전체의 4.8%가 했다고 응답했는데 비하여, 2차 조사에서는 6.0%가 했다고 응답하여 증가하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비행에서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가출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4.0%가 했다고 응답한 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약간 줄어든 3.8%가 했다고 응답했고, 1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는 1.1%인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0.8%로 다소 줄어들었다. 폭행의 경우도 1차 조사에서 9.0%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대폭 줄어들어 4.6%만이 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싸움도 줄어들었는데 1차에서는 5.4%였던 것이 2차 조사에서는 2.1%로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비행들이 줄어들었는데, 뺑뺑기와 절도는 1차 조사에서는 각각 5.5%와 6.9%였는데 비해 2차 조사에서는 각각 3.4%와 3.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원조교제를 한 경우는 0.1%인데 비해서 2차에서는 0%로 나타났다. 조롱과 협박, 왕따의 경우는 1차에서 각각 14.8%와 4.3%, 14.1%이던 것이 2차에서는 각각 6.2%와 2.1%, 3.5%로 많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0.3%이던 것이 2차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무단결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행들은 감소하였다.

두번째로, 평균비행회수를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먼저 흡연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0.9회 하는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평균 0.8회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음주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평균 1.4회 하는데 비해서 1년이 지난 2차 조사에서는 평균 1.6회로 다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1차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0.2회 무단결석을 하는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조금 증가한 평균 0.3회로 나타났다. 가출이나 성관계는 1차 조사나 2차 조사 모두 각각 평균 0.1회와 0회로 나타나 변동이 없었으며, 폭행이나 패싸움은 1차 조사에서 각각

평균 0.4회, 0.1회이던 것이 2차 조사에는 0.2회와 0.1회로 다소 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뺑뺑이나 절도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모두 평균 0.3회인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각각 평균 0.2회와 0.1회로 다소 감소하였다. 조롱, 헐박, 왕따의 경우는 1차 조사에서 각각 평균 1.2회, 0.2회, 0.4회인데 비해서, 2차 조사에서는 각각 평균 0.8회, 0.3회, 0.1회로 나타나 조롱이나 왕따는 감소했는데 비해서, 헐박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비행의 상습화율이 57.4%에 달할 정도로 비행상습화 경향이 심각하다. 1차 조사의 비행유무별로 2차 조사에서 비행유무를 살펴봤을 때에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586명이었는데, 이 중 2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79명으로 전체의 17.6%가 새롭게 비행을 하였다. 반면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훨씬 높은 차후 비행율을 나타내는데, 2차 조사에서도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31명으로 전체의 57.4%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비행의 지속 여부를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 본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2차 조사에서도 계속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80.9%였고, 새롭게 비행을 시작한 경우가 19.1%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한 경우, 2차 조사에서 비행을 중단한 경우가 46.3%였고, 계속 비행을 지속한 경우는 전체의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지속현상을 성별로 구분했을 때에 남학생 중에서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도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80.9%였고, 새롭게 비행을 시작한 경우가 19.1%이었다. 반면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한 경우에 2차 조사에서 비행을 중단한 경우는 46.3%였고 계속 비행을 상습화한 경우는 전체의 53.7%이었다. 여학생 중에서는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2차 조사에서 계속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84.0%, 새롭게 비행을 한 경우가 16.0%로 남학생에 비해 새롭게 한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비행을 중단한 경우가 39.2%였고, 계속 비행을 지속한 경우가 60.8%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

생들에 비해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이였다.

네 번째로, 이 연구의 가설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발전학습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학습과 관련된 요인들과 비행의 지속여부를 교차분석하였을 때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발전학습론 가설을 지지하였다. 1차 조사에서 측정된 부모의 폭력에 대한 학습과 비행의 지속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폭력을 적게 학습한 사람과, 중간 정도로 학습한 사람, 그리고 많이 학습한 사람의 경우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각각 56.0%, 55.5% 그리고 60.0%로 점점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폭력을 많이 학습할수록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에서 근신, 정학, 퇴학을 당한 비행친구가 없는 경우는 55.5%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있는 경우는 66.5%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서에 잡혀간 친구가 없는 경우는 55.6%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있는 경우는 69.9%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이나 범죄를 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도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66.8%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중간 정도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57.1%가,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47.2%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A-1. ‘문제성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상습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와 가설 A-2. ‘비행학습의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습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발전긴장론 가설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긴장요인으로 선정한 공부압력과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비행의 지속과를 교차분석하였을 때에, 공부압력의 정도가 하, 중, 상이 각각 56.0%, 55.7%, 61.9%로 일관된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공부압력이 높은 경우에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긴장인 스트레스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긴장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따라서 발전긴장론 가설 B-1.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많이 겪는 청소년일수록 상습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발전통제론 가설의 경우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통제요인으로 검토된 변수들을 비행의 지속여부와 교차분석하였을 때에, 우선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한 사람은 60.8%가 비행을 지속한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간 정도이거나 강한 사람의 경우 각각 56.5%, 55.0%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 경우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약한 경우 61.9%가 비행을 계속했는데 비해서, 중간 정도이거나 강한 경우 각각 54.0%와 55.1%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감독이 약하면 비행지속의 비율이 높았다. 교사에 대한 애착 또한 비행 지속 현상과 유사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교사에 대한 애착이 약한 경우 66.8%가 비행을 지속했는데 비해서, 교사에 대한 애착이 중간 정도이거나 강한 경우 각각 54.1%와 53.4%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56.4%가 비행을 지속한데 비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63.8%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통제론 가설 C-1. ‘사회적 유대에 문제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습적 비행행위에 빠져들 것이다’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끝으로, 청소년의 비행상습화와 관련된 사회배경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60.2%가 비행을 지속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5.6%가 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자녀가 비행을 더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세분화했을 때에 100만원 이하의 가정 자녀의 61.8%가 비행을 지속하여 가장 지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소득대가 반대로 4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대의 가정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높으며,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가정 자녀가 가장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65.1%로 가장 비행을 많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대구/경북, 서울, 대전/충남, 인천/경기,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교 이하인 경우에 비행은 지속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또 결손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결손가정이 61.3%로 비결손가정의 67.0%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원인들이 청소년비행이 상습화되는 과정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의 상습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에서 논의한 다양한 지속원인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에서는 청소년들이 상습비행소년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체계적 비행예방대책의 수립, 2) 회복적 대처방안의 도입을 제안하고 하고자 한다.

1) 체계적 비행예방대책의 수립

청소년비행의 예방은 크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예방,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 예방, 문제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3차적 예방 등 세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가지 단계 중에서 기존의 비행예방대책은 1차적 예방에 치중할 뿐이며 다른 단계의 예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흔히 비행예방방안으로 인성교육,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학부모교육, 신고 및 상담 등과 같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예방방안만이 강조될 뿐이며 청소년비행의 위험성이 있는 불량서클에 가담했거나 폭력적 갈등해결방식에 노출되어 있고, 주위로부터 모멸감이나 스트레스를 과도히 받고 있는 등의 청소년에 대한 2차적 예방, 그리고 불량서클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도교육하는 3차적 예방방안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이 상습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2차적 비행예방활동과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

차적 비행예방활동이 균형있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차적 예방은 흔히 위험집단에 대한 예측과 위험집단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어떤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은지를 판별하는 예측연구와 함께 외국에서 위험집단에 대한 개입방안으로 널리 활용하는 분노 조절(anger management), 사회화능력(prosocial skill), 폭력관리(violence risk education) 등과 같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차적 예방은 비행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경찰을 통한 소년사법체계가 주도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하겠지만 소년사법체계에 의존하기 전에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역시 비행청소년에 대한 3차적 예방대책의 모색에 적극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제안될 수 있는 3차적 예방방안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청소년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STAR(특별처우와 재활, Speci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이다. STAR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을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선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텍사스주의 경우에 교내에서 청소년비행을 저지르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을 일정기간 STAR 프로그램에 보낼 수 있다. STAR 프로그램은 오전 5:30분부터 학생의 등교시간 전까지 그리고 방과후부터 오후 5:45분까지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은 정신교육과 함께 엄격한 신체훈련으로 진행된다. STAR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참여 학생들은 엄격한 정신교육과 신체단련으로 자긍심을 회복하였고 규율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학생들의 부모도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다. STAR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을 기존의 소년사법체계와 달리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면서 엄격한 정신교육과 신체교육으로 비행청소년이 흔히 결여하는 자긍심을 배양하고 규율준수의 당위성을 인식시켜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3차 예방방안의 하나로 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회복적 대처방안의 도입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대처방안은 근본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비행은 저지른 청소년과 이로부터 피해를 겪은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행청소년은 자신의 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피해자는 그 나름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토로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회복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행청소년은 스스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참회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존 인식은 이들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된 자로, 보호나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로 취급할 뿐 자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모, 친척, 학교선생, 지역사회주민의 개입 없이 단지 비행소년 당사자만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비행의 상습화는 가정 내의 애착결핍, 학교생활의 부적응, 불건전한 교우관계, 환경에의 부적응, 거주환경의 불건전성 등 주위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상습적 비행에 빠져든 계기가 부적절한 가정환경이나 억압적인 학교환경 때문이라면 비행소년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위사람들도 청소년의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에 대한 기존의 우리나라 대책들은 주위사람들의 이해촉구나 참여유도는 등한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년만의 변화를 강요할 뿐이었다.

비행청소년의 상습화를 예방하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회복적 대처방안의 도입이다. 최근 여러 나라들이 회복적 대처방안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회복적 대처방안을 가장 선도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1989년에 청소년이 저지른 모든 비행사건에 회복적 대처방안의 적용을 의무화시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청소년 비행문제의 완화나 상습화현상의 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대처방안은 새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첫 번째 원칙은 비행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비행의 의미는 피해자, 지역사

회, 비행청소년의 원만한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을 청소년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와 같이 실정법 위주로 정의되었는데, 이와 같이 실정법 위주의 정의를 지양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위환경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비행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에 대한 대책은 해당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위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비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소년사법체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가능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공식적인 소년사법체계는 소극적이어야 하며 대신에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관계회복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그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이 준비된다. 회합의 구성원은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성원이나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회합을 주재할 중재자 등이다. 회합이 개최되면 피해자는 자기가 겪은 고통이나 심정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비행청소년의 행위로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은 이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을 통해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갖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설명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비행청소년의 부모나 주위사람들은 피해자의 손상에 대해서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책임하에 더 이상의 비행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함으로써 가해자와 비행청소년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재자는 화해회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연락을 담당하고, 회합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규칙들을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화해회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뉴질랜드의 화해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화해회합을 거친 비행청소년의 상습화 정도는 현격히 감소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들대로 회합참석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 문제는 소년사법체계의 영역이라고 치부하였던 지역사회주민들도 비행청소년의 재

활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대처방안을 도입한다면 기존방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행청소년의 상습화를 방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 비행청소년은 화해회합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행의 해악을 직접 체득하는 교육기회를 가질 것이며, 2) 비행청소년과 가까운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조차 잘못을 힐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행청소년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3) 청소년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음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울 것이며, 4) 소년사법체계의 개입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준호·이순래(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도중진·이진국·윤동호·이순래(2005).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류철원(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Vol 23, pp.107-138.
- 이순래(1996).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Vol 8, pp.39-64.
- 이순래(2005).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춘계학술세미나 발표원 고, p.4.
- 박철현(1999). 범죄경력의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 및 교정기록을 통한 종단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인섭·박철현(1995).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dams, K.(1997). Developmental aspects of adult crime In T.P. Thornberry (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New Brunswick, N.J.:Transaction Publishers. pp.314-320.
- Agnew, R(1997).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A strain theory explanation In T.P. Thornberry (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101-132.
- Baird, S.C., G.M. Storrs, and H. Connelly(1987). Classification of Juveniles in Corrections: A Model Systems Approach. Washington, D.C.: Arthur D. Litte.
- Bartusch, D.R.J., D.R. Lynam, T.E. Moffitt. and P.A. Silva(1997). Is age important? Testing a general versus a developmental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Vol 35, pp.13-48.
- Blumstein, A.(1983). Selective incapacitation as a means of crime contro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pp.87-108.
- Blumstein, A, D.P. Farrington, and S.D. Moitra(1985). Delinquency careers: Innocents, desisters, and persisters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6.
- Blumstein, A. & J. Cohen(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Vol 237,

pp.985-991.

- Blumstein, A., J. Cohen, and D.P. Farrington(1988).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Vol 26, pp.1-35.
- Blumstein, A., J. Cohen, and D.P. Farrington(1988). Longitudinal and criminal career research: Further classifications. *Criminology*, Vol 26, pp.57-74.
- Bursik, R.J. Jr(1980). The dynamics of specialization in juvenile offenses. *Social Forces*, Vol 58, pp. 851-864.
- Caspi, A., G.H. Elder, Jr. and E.S. Herbener(1990). Childhood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life-course patterns In L. Robins & M. Rutter(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3-35.
- Chaiken, J.M. & M.R. Chaiken(1982). *Varieties of Criminal Behavior: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Report R-2814-NIJ.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 Cohen, J.(1986). Research on criminal careers: Individual frequency rates and offense seriousness In A. Blumstein, J. Cohen, J.A. Roth, and C.A. Visher (eds.). *Criminal Career and Career Criminals*, Volume 1. National Academy Press.
- Farrington, D.P. & D.J. West(1990). The Cambridge study of delinquent development: A long-term follow-up of 411 London males In H.J. Kerner & G. Kaiser (eds.). *Kriminalitat*. New York: Springer-Verlag. pp.117-138.
- Freeman, R(1991). *Crime and the Employment of Disadvantaged Youth*.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Glueck, S. & E. Glueck(1968).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in Perspectiv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Gove, W.R(1985). The effect of age and gender on deviant behavior: A biopsychological perspective In A. S. Rossi (eds.). *Gender and the Life Course*. Chicago: Aldine.
- Gottfredson, M. & T.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 T. Hirschi(1986). The true value of Lambda would appear to be zero: An essay on career criminals, criminal careers, selective incapacitation, cohort studies, and related topics. *Criminology*, Vol 24, pp.213-234.
- Hagan, J(1993). The social embeddedness of crime and unemployment. *Criminology*, Vol 31, pp.465-491.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 M. Gottfredson(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9, pp.552-584.
- Hoffmann, P.J. & F.G. Cerbone(1999).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nquency escalation in early adolescence. Criminology, Vol 37.
- Kempf, K.L.(1986). Offense specialization: Does it exist? In D.B. Cornish & Ronald V. Clarke (eds.).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New York: Springer-Verlag.
- Klein, M.W.(1984). Offense specialization and versatility among juvenil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24, pp.185-194.
- Larson, R. & M. Ham(1993). "Stress and 'Stress and Storm' in early adolescence: The relationships of negative events with dysphoric a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pp.130-140.
- Lattimore, P.K., C A. Visher, and R.L. Linster(1994). Specialization in juvenile careers: Markov results for California cohor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0.
- Laub, J.H. & R.J. Sampson(1993). Turning points in the life course: Why change matters to the study of crime. Criminology, Vol 31, pp.301-325.
- Lee, Soon-Rae(1993). Reintegrating Youthful Offenders into Communiti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raithwaite's Theory on Reintegrative Sham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Lytton, H(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pp.683-697.
- Liska, A.E. & M.D. Reed(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0, pp.547-560.
- Matza, D.(1968). Delinquency and Drift. New York: John Wiley & Sons.
- Moffitt. T.E(1993).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pp.674-701.
- _____(1997).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In T P. Thornberry (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 Moffitt, T.E. & P.A. Silva(1988). Self-reported delinquency: Results from an instrument for New Zealan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Vol 21, pp.227-240.

- Nagin, D.S., D.P. Farrington, T.E. Moffitt(1995). Life-course trajectories of different types of offenders. *Criminology*, Vol 33, pp.111-139.
- Nagin, D. & J. Waldfoege(1992). The Effects of Criminality and Conviction on the Labour Market Status of Young British Offenders. Pittsburgh: Carnegie Mellon University.
- Nagin, D. & K. Land(1993). Age, criminal careers, and population heterogeneity: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of a nonparametric mixed poisson model. *Criminology*, Vol 31, pp.327-362.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pp.644-660.
- Paternoster, R. & R. Brame(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Vol 35, pp.49-84.
- Robins, L.N.(1978). Sturdy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antisocial behavior: Replications from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Medicine*, Vol 8, pp.611-622.
- Rojek, D.G. & M.L. Erickson(1982). Delinquent careers: A test of the career escalation model. *Criminology*, Vol 20, pp.5-28.
- Sampson, R.J. & J.H. Laub(1996). *Crime in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1996).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133-161
- Shannon, L.W., J.L. McKim, J.P. Curry, and L.J. Haffner(1988). *Criminal Career Continuity: Its social Context*.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Inc.
- Siegal, L.J. & J.J. Senna(1988).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West Publishing Company.
- Thornberry, T.P.(1997). Introduction: Some advantages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crime and delinquency In T.P. Thornberry (eds.).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1-10.
- Thornberry, T.P. & R.L. Christenson(1984). Unemployment and criminal involvement: An investigation of reciprocal causal struct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pp.398-411.
- Tonry, M., L.E. Ohlin, and D.P. Farrington(1991). *Human Development and Criminal*

- Behavior: New Ways of Advancing Knowledge. New York: Springer-Verlag.
- Tontodonato, P.(1988). Explaining rate changes in delinquent arrest transition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Criminology*, Vol 26, pp.439-459.
- Tracy, P.E., M.E. Wolfgang, and R.M. Figlio(1990). *Delinquency Careers in Two Birth Cohorts*. New York: Plenum Press.
- Warr, M.(1998). Life-course transition and desistance from crime. *Criminology* Vol 36.
- White, J., T.E. Moffitt, F. Earls, L.N. Robins, and P.A. Silva(1990). How early can we tell? Preschool predictors of boys'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8, pp.507-533.
- Wolfgang, M.E., R M. Figlio(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lfgang, M.E., T.P. Farrington, and R.M. Figlio(1987). *From Boys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혜영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5-R12-3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해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흥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2006년도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인 쇄 2005년 12월 3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식회사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66-4(93330)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순래(원광대학교 · 교수)

박철현(동의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현희(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이 연구는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 등 기존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KYPS(Korea Youth Panel Study) 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1) 청소년비행 상습화 현상의 실태를 기술하고, 2) 상습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3) 분석결과를 기초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했을 때에 비행의 양적 발생추세는 전체 청소년비행에서와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로, 평균비행회수를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세 번째로, 비행의 상습화율이 57.4%에 달할 정도로 비행상습화 경향이 심각하다. 1차 조사의 비행유무별로 2차 조사에서 비행유무를 살펴봤을 때에 1차 조사에서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586명이었는데, 이 중 2차 조사에서도 비행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31명으로 전체의 57.4%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이 연구의 가설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발전학습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학습과 관련된 요인들과 비행의 지속여부를 교차분석하였을 때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발전학습론 가설을 지지하였다. 발전긴장론 가설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발전통제론 가설의 경우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1) 체계적 비행예방대책의 수립 : 청소년비행의 예방은 크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예방,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 예방, 문제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3차적 예방 등 세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가지 단계 중에서 기

존의 비행예방대책은 1차적 예방에 치중할 뿐이며 다른 단계의 예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이 상습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2차적 비행예방활동과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차적 비행예방활동이 균형있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회복적 대처방안의 도입 : 비행청소년의 상습화를 예방하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회복적 대처방안의 도입이다. 회복적 대처방안을 가장 선도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대처방안은 새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첫 번째 원칙은 비행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비행의 의미는 피해자,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원만한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에 대한 대책은 해당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위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비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소년사법체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가능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공식적인 소년사법체계는 소극적이어야 하며 대신에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관계회복에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대처방안을 도입한다면 기존 방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행청소년의 상습화를 방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 비행청소년은 화해회합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행의 해악을 직접 체득하는 교육기회를 가질 것이며, 2) 비행청소년과 가까운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조차 잘못을 할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행청소년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3) 청소년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음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울 것이며, 4) 소년사법체계의 개입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발전학습론	9
2. 발전긴장론	15
1) 긴장관계의 증가	18
2) 인지형식의 변화	20
3) 비행적 긴장대처경향	21
3. 발전통제론	23
4. 연구가설의 설정	29
III. 연구방법	31
1. 분석자료	33
2. 조작적 정의	37
1) 학습요인	37
2) 긴장요인	37
3) 통제요인	38
4) 개인적 배경요인	39
IV. 연구결과	41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43
2. 비행상습화 현상에 관한 기초분석	44
1) 비행의 분포와 발전	44
2) 생활환경의 변화	53
3. 비행상습화와 그 관련요인	54
1) 학습요인과 비행상습화	55

2) 긴장요인과 비행상습화	56
3) 통제요인과 비행상습화	56
4) 개인적 배경요인과 비행상습화	58
V. 결론	61
1. 연구의 요약	63
2. 정책제언	68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 III-1> 중2 패널 1차년도 12개 시도별 표집학교수	34
<표 III-2> 중2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조사성공률	35
<표 III-3>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36
<표 IV-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화	44
<표 IV-2> 학년별 비행유형별 개입비율	46
<표 IV-3> 비행유형별 평균횟수	47
<표 IV-4> 청소년 비행의 지속여부	48
<표 IV-5> 성별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48
<표 IV-6> 비행유형별 분포(1차 조사)	49
<표 IV-7> 비행유형(1차)별 비행지속여부	51
<표 IV-8> 만 12세 이전 중비행 여부별 비행지속여부	52
<표 IV-9> 만 12세 이전 중비행 여부별 평균 비행건수	52
<표 IV-10> 독립변수들의 변화	54
<표 IV-11> 학습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55
<표 IV-12> 긴장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56
<표 IV-13> 통제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57
<표 IV-14> 개인적 배경요인에 따른 비행지속여부	59